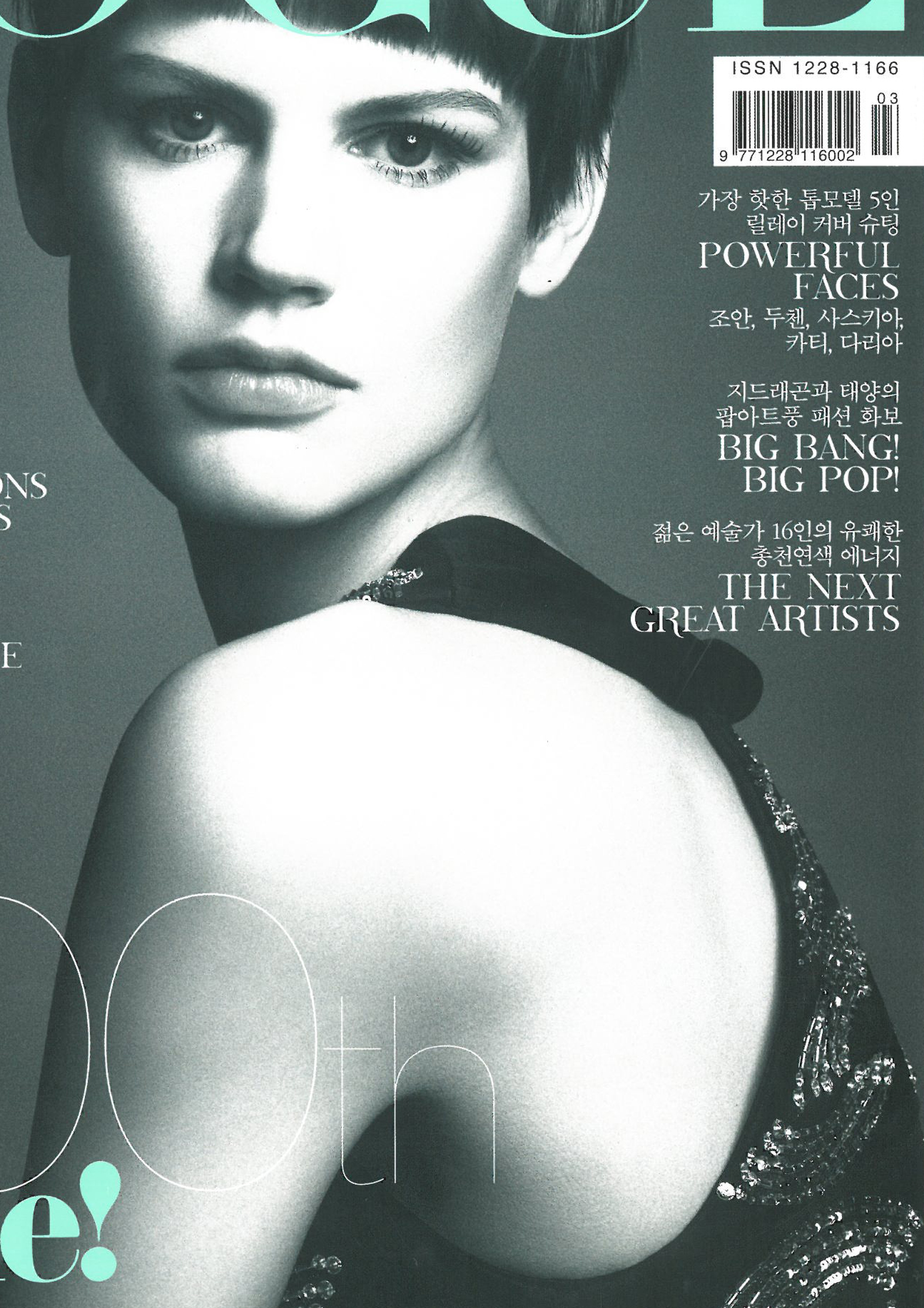
VOGUE KOREA

보그 한국판
MAR
2013
통권 200호
7,500원



ISSN 1228-1166
03
9 771228 116002

가장 핫한 톱모델 5인
릴레이 커버 슈팅
POWERFUL FACES
조안, 두첸, 사스키아,
카티, 다리아

지드래곤과 태양의
팝아트풍 패션 화보
BIG BANG! BIG POP!

젊은 예술가 16인의 유쾌한
총천연색 에너지
THE NEXT GREAT ARTISTS

200호 기념 별책부록
〈IMAGES FROM 100~199 ISSUE〉
소장 가치 만점의
〈보그〉 아카이브 사진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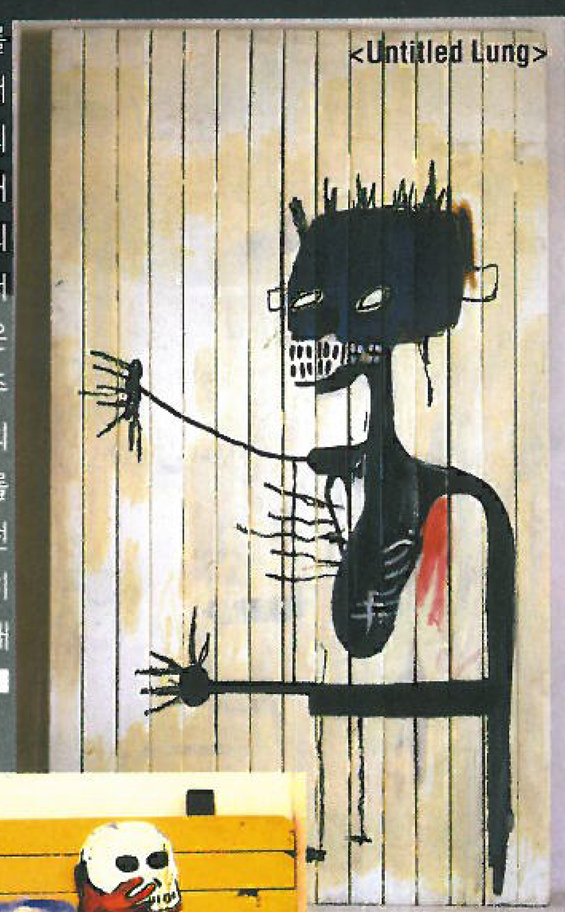
200호 기념 프로젝트
CONGRATULATIONS & CELEBRATIONS
전 세계 패피 200명을 촬영한
〈보그〉 스페셜 포토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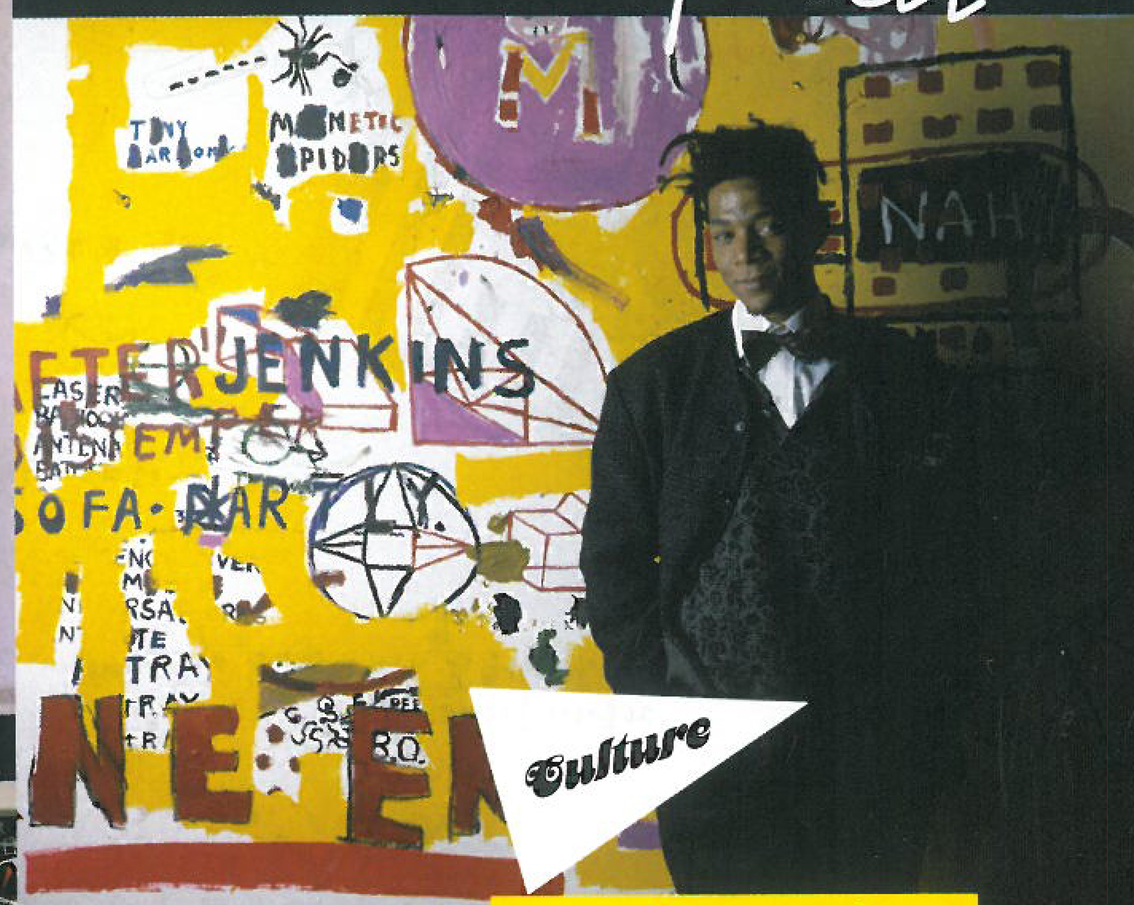
200호 기획 특집
WOMEN in VOGUE
〈보그〉를 빛낸 대한민국
여성 파워 120명

the 200th issue!

great basquiat

미국 미술계의 검은 피카소, 바스키아의 짧지만 강렬했던 생애를 돌아보는 전시가 오는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국제 갤러리에서 열린다.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보고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화가가 되기로 결심한 바스키아는 거리의 낙서를 통해 자기만의 예술세계를 펼쳐나갔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선물받은 해부학 책에서 영감을 받은 다양한 해부학 도상들이 공개된다. 어린아이의 그림 같은 그의 작품 속에는 흑인 영웅들과 만화 속 장면뿐 아니라 왕관도 자주 등장한다. 화가의 친구였던 줄리앙 슈나벨 감독은 영화 〈바스키아〉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술 왕관 때문에 탑에 갇힌 왕자의 슬픈 동화를 들려줬다. 탈출을 위해 창살에 머리를 부딪힐 때마다 울려 퍼지던 아름다운 왕관 소리는 세상에 아름다움을 전했지만, 왕자는 영원히 고독한 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스물일곱 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예술가 바스키아의 그림은 바로 그 요술 왕관이다. **LM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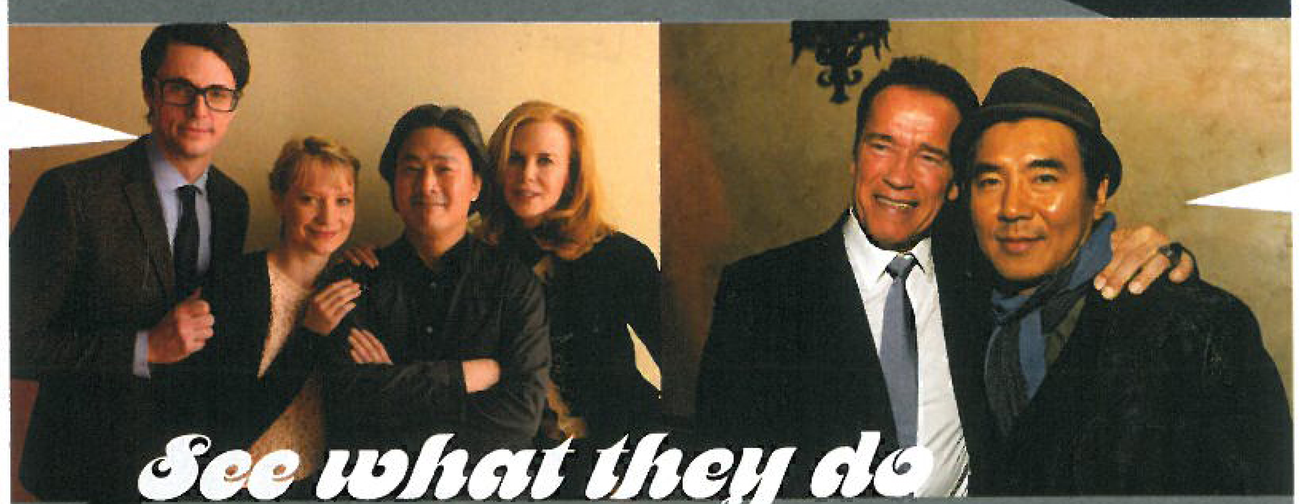


Culture

editor's note

알고 싶고, 누리고 싶은 당신의 지성과 욕구를 자극하는 문화계 소식들. **LMH·KEK**

"박찬욱은 이 영화를 통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다. 특출나고 절묘하게 연출된 작품이다."–*〈버라이어티〉* "〈올드보이〉에서도 익히 드러났던 박찬욱의 와일드함이 역시나 두드러진다. 가족 간의 긴장감이 쌓이다가 폭발하는 서사를 연출하는 능력도 안정적이다." –*〈스크린 인터내셔널〉* "문학적인 레퍼런스와 상징들이 가득한 작품이다. 영화를 보면서 각 캐릭터들이 뭘 상징하고 있는지 알아낸다면 좋은 실마리가 될 것이다."–*〈가디언〉* "대담하고 묘하게 비트는, 히치콕의 '리프'가 살아 있다. 하지만 박찬욱의 대표작인 〈올드보이〉에 견줄 정도는 아니다."–*〈필름닷컴〉* "올가을이면 스파이크 리의 〈올드보이〉 리메이크가 나오고, 박찬욱은 고대하던 할리우드 데뷔를 치렀다. 그는 완고하고도 엄격한 카메라 워킹으로 서로 맞물려 있는 등장인물 간의 긴장감을 잡아낸다." –*〈할리우드 리포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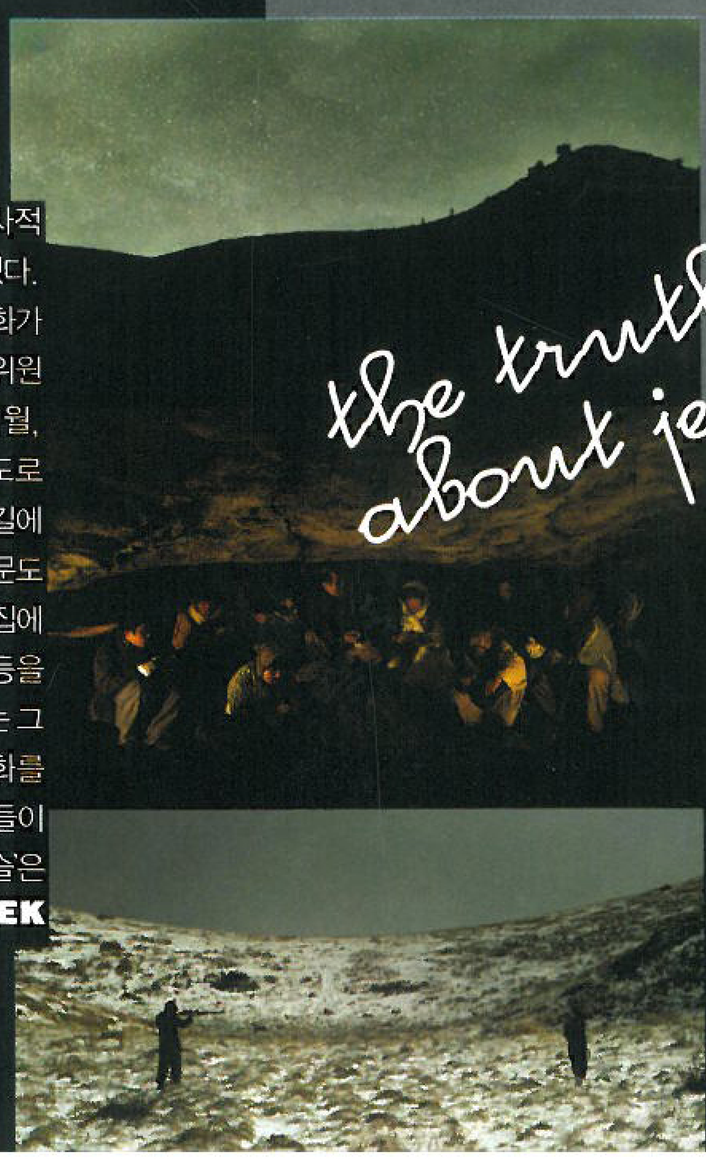
See what they do

3월을 맞기 전, 드디어 김지운의 〈라스트 스탠드〉와 박찬욱의 〈스토커〉를 국내에서도 볼 수 있다. 미국에서 먼저 개봉한 〈라스트 스탠드〉의 경우 평은 극과 극으로 갈렸고, 흥행 성적은 다소 기대 이하였다. 〈스토커〉는 한국과 미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다. 두 영화에 대한 해외 매체와 평론가들의 '말말말'을 모아봤다. **KEK**

"긴장감은 못 느꼈지만, 액션 장면은 눈을 사로잡았다. 아놀드 슈왈제네거에겐 최고의 커리어다."–*〈할리우드 리포터〉* "모든 장면이 생기 넘치게 이어졌다. 아무 생각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충분한 영화다."–*〈AP 통신〉* "시나리오가 엉망이다. 클리셰와 형식적인 조크와 손쉬운 결말로 차 있다. 그럼에도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열정이다."–*〈뉴욕 데일리 뉴스〉* "결론부터 말하자면 즐겁게 영화를 관람했다. 그러니 부끄러워할 건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면에서 김지운다운 특징을 찾아내긴 쉽지 않았다. 그는 이전 작품들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진 못했다."–*달시 파켓(영화 평론가).* "물불 가리지 않는 캐릭터들에 힘입어 스릴 있는 액션 장면을 선보인다. 덕분에 캐릭터들은 죽을 때조차 활발하다."–*〈타임〉*

the truth about jeju

일명 '제주 4.3 사태'는 한국의 역사적 사건들 중에서 유독 봉인돼 있었다. 제주도의 '그날들'을 그린 영화가 제29회 선댄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다. 〈지슬〉은 1948년 11월, '해안선 5km 밖 사람들은 모두 폭도로 몰린다'는 흉흉한 소문을 듣고 피난길에 오르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다. 영문도 모른 채 피난 떠나는 사람들은 집에 두고 온 돼지 걱정, 장가 갈 걱정 등을 쏟아내고, 희극과 비극을 넘나드는 그 풍경 앞에서 가슴이 아려온다. 영화를 보고 나서 한동안 감자를 먹을 땐 그들이 나눠먹던 감자가 떠오를 것이다. '지슬'은 감자의 제주도 방언. **KEK**



Once in a Castle

이태원의 문화적인 인상을 결정짓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라운지 클럽 '비원(B1)'이 2월, 몸집을 키워 재오픈했다. 2006년에 처음 생긴 곳이니 7년 만의 외출이다. 가장 큰 변화는 규모와 인테리어. 세 가지 컨셉의 섹션이 크고 넓은 공간에 순차적으로 펼쳐지는데, 오래된 구조물과 유럽에서 공수해온 장식물들 덕에 중세 성을 탐험하는 기분이 든다. 매끈하고 모던한 클럽과는 또 다른 분위기다. 공간을 채울 음악은 특정 장르에 제한되지 않은 다양한 사운드. 당분간 이곳에선 처음 클럽에 온 사람처럼 두리번거리며 구경하는 재미에 빠질 것 같다. **KEK**